



현충일을 모르는 아이들

1900년대 중반 한국역사상 최초로 대한 민국정부로부터 해외투자인가를 받은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을 개발한 한국남방개발(주)이다. 어릴 때 일본에 건너가 기업인으로 성공한 최계월(94.토고 거주)씨가 군사정부 지원으로 해병대상 특수단출신 직원 120명을 뽑아 보르네오 정글에 투입, 원시림을 벌채하여 한국의 합관수출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하면서 큰돈을 번 최계월 사장은 이후 한국최초로 해외석유사주 사업인 마두리유전개발로 이어졌다.

마두리 유전은 시추초기 시추 유정(油井)의 압력감압으로 인해 1일생산량이 줄고 당시만 해도 유가가 30불 수준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계속 유정을 수리하며 생산량을 늘여가면서 또한 인근 작은 유정들을 연결하여 현재는 하루에 8천 배럴의 원유와 석유가스를 해저 1,500미터 땅속에서 퍼 올리며 유가마저 올라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내 젊음의 황금기 6년을 인도네시아 사업현장 업무과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우리 회사 사훈(社訓)이 “祖國의 榮光”이었다. 최계월 사장은 “조국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 무엇을 해도 신명이라고는 전혀 나지 않던 그 암울한 식민지시절에 일본사람들한테 조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조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멎게되면 그때,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의 심정을 요즘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끝내 고집

을 하여 지금도 사훈 첫머리는 계속하여 “조국의 영광”이다.

나는 귀국하여 10여년 뒤에 최계월 회장의 스토리를 실명소설(“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上,下, 1994. 12. 중앙일보사 간행)로 쓰게 되면서 최회장을 밀착 취재할 기회가 생겨 약 한달 동안 바다북판에 있는 마두리유전 석유시추산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현장을 최회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삶과 인간적인 면면 그리고 기업관과 국가관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당시 내가 느꼈던 여러 소회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부분이 최회장의 동작동 국립묘지 방문이었다.

최계월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만 전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현장에만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문데 해외에 나갔다 오래 만에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현재의 국립현충원)에 찾아가 참배를 하곤 하기에 사연을 보았는데 감동이었다.

최회장이 젊어서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 최회장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여 교포학생 2명을 뽑아 쓰게 되면서 “여기는 일본이다. 자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던 가슴에 항상 조국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공산군이 과속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어느 날 그 젊은이 둘이 시작서를 손에 들고 최계월사장을 찾아와

“조국이 바닷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데 기민있을 수가 없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권태하(작가, 검교공파 33세)

한국전에 참전코자 한다.”하기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총도 잡아본 경험 없는 자네들이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도 딱어다사람부가 곧 한국전쟁을 승리로 끌어 갈 것이다. 그 열정 가슴에 담고 하던 공부나 열심하 하려서 회사 일이나 충실해라.”하고 밤새도록 술을 사주며 타일러 실득된 줄로 알고 마음을 놓았는데 두 사람은 다음날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하여 한국으로 건너가서 1주일동안 군사교육을 받은 후 포항지구전투에 참가하여 한 달이 채 못되어 두 사람 모두 포항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내 아무리 사업을 하면서 만에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오로지 한국 땅에 없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만 열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그 후배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겨우 일 년에 한두 번 나를 영원히 이겨버린 그들을 찾아가 잠시 만나 소회를 풀고 오는 것인데 누가 보든 말든 그게 나한테 뭘 상관이냐?”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최회장 모습이며 목소리가 지금도 내 눈과 귀에 생생하다.

부모들이 조기개암까지 하지 않고 현충일을 무관심하게 지나다 보니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리에 생각 나는 지난 이야기이다.

제헌절(制憲節)을 맞으며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오는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지 63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4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 공휴일이다.

우리 헌법 제정의 유래를 살펴보면 1948년 5월10일, UN임시 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선거 가능지역인 38도선 이남에서 이른바 ‘5.10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인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1948년 7월12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한 헌법안은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 당시의 국회의장 이승만(李承晩)박사의 서명 하에 공포되어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헌법의 법적 성격을 들면 첫째는 기초법(基礎法)으로 국가의 영토, 국민, 통치권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만을 규정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본래의미의 헌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이를 고유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으로는 근대 민주국가 수립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 확립된 입헌주의적 헌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특색은 ①자유권 보장 ②삼권분립제도 ③의회제도 ④법치주의 ⑤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의 종류는 ①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문헌법, 불문헌법 ②개정절차의 난이(難易)에 따라 경성헌법, 연성헌법 ③제정된 경우 또는 주체에 따라 흥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 민정헌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특색은 성문헌법(成文憲法), 경성헌법(硬性憲法), 민정헌법(民定憲法),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우리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살펴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 건국이념과 함께 헌법정립의 유래, 역사적 내력, 헌법제정의 주체, 헌법의 기본원리가 담겨져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

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에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전문(前文)-

다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자.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들은 헌법조항이나 다른 법률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에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에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원리가 가미 되어 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이념적, 법적기초로 국민주권주의 ②정치적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주의 ③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원리로 복지국가 ④국제 질서의 기본원리로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⑤평화통일의 원리로 요약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이후 오늘 날 까지 계속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 상황이다. 제헌절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며 애국, 애족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교만한 왕준을 상대한 석록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진(晉)의 회제(懷帝)는 흉노족이 세운 한(漢)에 잡혀가서 죽자 사마염(司馬鄴)이 장안에서 진나라의 황제로 등극하였는데 이 사람이 민제(愍帝)이다. 이 민제는 3년 정도 지나면서 흉노족의 한나라 유요(劉曜)에게 투항하는데, 이로써 서진(西晉)은 멸망한다. 그리고 사마염(司馬鄴)가 지금의 남경인 건강(建康)에서 진을 부흥시키어 황제가 올라 동진(東晉)을 세운다.

이렇게 서진이 망하고 동진이 서는 과정에서 진(晉)의 유주(幽州)와 기주(冀州) 지역의 군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왕준(王隲)이 있었다. 유주와 기주는 지금의 산둥지역이므로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도읍인 장안은 위협 받는다고 하여도 서쪽은 튼튼한 셈이었다. 왕준은 진나라가 촉한을 멸망시키고 강남지역에 있는 오(吳)나라를 정벌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이때에 왕준은 장강 상류에 4층으로 된 누각을 쌓고 커다란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하도 커서 배 안에서 말을 타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민약에 왕준만 동부에서 잘 버텨 온다면 진(晉) 나라 북방민족이 내려온다고 하여도 황하지역을 다 내주고 남쪽으로 웅색하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그만한 힘이 있었다. 이 시절에 한(漢)의 장수로 진의 왕준과 맞서고 있는 사람

은 후조(後趙)를 세우게 되는 석록(石勒)이었다.

진의 민제 건흥 2년(314년)에 왕준의 사자(使者)가 석록의 군영으로 갔다. 석록을 세력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석록은 흰색 병졸과 무기와 갑옷은 다 숨겨 두고 노약자인 병사와 텅 빈 창고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왕준이 보낸 편지를 반자 절까지 하였다. 그리고 왕준이 보낸 선물인 주미(麩尾)를 반자 이를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처럼 하면서 벽에다 걸어놓고 아집져녀으로 이 주미에게 절을 하였다. 주미란 사슴의 일종인 주(麩)의 꼬리를 이용하여 여기에 보석을 달아서 만든 부채이다.

석록은 왕준을 극진히 공경하는 모양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감이 왕공(王公)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왕공이 보내 준 이 주미를 보니 마치 왕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최고 의 공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왕준에게 편지를 보내어 황제에 오르라고 까지 꼬드겼다.

그러나 석록은 면밀하게 왕준의 정치 살폈다. 왕준이 곡식 100곡(斛)을 쌓아 놓고도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역을 많이 시키고 충성스럽고 똑똑한 사람이 자꾸 왕준에게서 떠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왕준이 곧 망할 것을 알았

지만 자기 혼자만은 자신만만하고 높은 누각을 세우고 스스로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한편 왕준이 석록에게 보낸 사자가 왕준에게 돌아와서 보고 하였다. ‘석록의 형세는 적고, 왕준에 대하여서도 배반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다.’ 석록의 진영에 가서 결모습만 보고 온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왕준은 더 이상 석록을 경계하지 않았다. 방어 설비도 하지 않고 더욱 교만하고 게을러졌다.

한편 석록은 엄하게 준비하고 왕릉을 습격하려고 하였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 석록이 왕준을 치러 가서 근거지를 비워 놓는다면 그 틈에 뒤에서 다른 종족인 선비족이나 오환족이 노릴 것을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하인 장빈이 속전속결하면 된다는 계책을 내어 실행했다. 결국 왕준은 석록의 기습을 만나자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도 못하고 잡혀 죽었고, 그를 따르던 군대 1만 명도 죽었다. 석록은 왕준 휘하에 있던 똑똑한 사람을 다 받아들었다. 그리고 ‘유주를 빼앗을 것 보다 이 사람을 얻은 것이 더 기쁘다’고 말하였다. 석록은 흉노족도 아니고 갈족(羯族)이어서 처음에는 사환(師團)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출발한 사람이다. 그러나 석록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알았다. 그래서 후조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투고

인생에 중요한 3가지 요소

毛村權五福 (본지 편집위원)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즐거움의 요소는 좋은 친구, 좋은 책, 좋은 경치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담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풍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백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친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산속에서 살더라도 경서, 제자백가, 역사서, 약재와 방서(方書) 등을 갖추어 개울물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적막한 밤, 이부자리를 펴기 전에 잠시 책을 보는 것과 비바람 몰아치는 날 대문 닫고 방 청소를 한 다음 앞에 가득히 쌓인 책 가운데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뽑아서 펼쳐보는 책을 읽는 삼매경 속에서 ‘군자는 백세에 향기를 전할지언정 한 시대의 아름다운 자태로 남기를 원치 않

는다’는 호연지기를 일깨웠다.

저무는 봄,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로 마주보는 숲 속 바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는 일, 스님과 솔밭 바위에 앉아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 마음에 맞는 벗과 바위 끝에 벌렁누워,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을 보는 일, 질화로에 향을 사르고 설경을 바라보며 선(禪)에 대해 얘기하는 일, 초여름 날 집에서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 마음내키는 대로 바위에 앉아보는 일들이 좋은 경치를 꾸밈없이 삶의 중요한 배경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조선 인조때의 학자인 신희(申欽) 선생의 글의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날이든 날마다 시간과 돈과 욕망에 쫓기며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정단체비
 - ▲권송성(부회장) 100만원
 - ▲권영훈(부회장) 100만원
 - 소계 200만원
- 운영위원회비
 - ▲권우식(인선) 10만원
 - ▲권영방(인양) 10만원
 - ▲권오섭(진천) 10만원
 - 소계 30만원
- 천조금
 - ▲부산종친회 30만원
 - ▲권홍사(부회장) 300만원
 - 소계 330만원

합계 560만원

바로잡음

본지(2011. 6. 1 제432호) 2면 '검교공공공공공' 기사중 ▲대축: 이연길을 이경길로 바로잡습니다.

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은 “친구”도 “책”도 “경치”도 없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각박한 심정을 아프게 한다.

“문을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는 것, 문을 나서서 마음에 드는 경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安東權氏 昌和公(諱 準) 派 世譜編修 公告

금번 우리宗會에서는 처음으로 昌和公派 世譜編修 事業을 實施기로 決議되어 다음과 같이 公告하오니 各宗會 門中에서는 收單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協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단기간, 수단금, 수단기재요령, 보책금액, 보책분질 등을 협의코져 편찬위원회를 개최코져 하오니 편찬위원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29-2호(중회사무실)
 3. 참여자 : 각 종회 대표자 및 편찬위원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중회에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29-2호
회장 권병선 : 011-273-7475, 총무 권병문 : 010-9055-8355

安東權氏 昌和公宗中 會長 권炳善

昌和公의 가계도

14世 準	15世 衡	16世 鏞	17世 定柱·演
		鏞	壽安·景
		鏞	澄·漸滋
		鈞	弘·幹
		鏞	堉·增·塚
		適	顯
			遜·選·暹

☐ 대행시는 한국뿌리정보 대표 권석원 (011-289-3856 (02)2234-0045)

☐ 족보, 문집
☐ 비문번역, 출판
☐ CD롬 제작

2011년 7월 1일